

Newsletter 느헤미야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 **화롯불 모임** (5월 31일, 6월 28일)
〈사단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으로 김동춘 교수와 함께 독서모임을 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신학특강** (5월 1일)
정승훈 교수 초청(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신학특강을 〈바빙크와 바르트: 개혁신학을 위한 공동유산〉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 **연구과정 체육대회** (6월 6일)
연구과정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들이 난지천 공원에서 체육대회로 함께 했습니다.
- **공동세미나** (6월 10일)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부산교회개혁연대가 〈한국교회 보수화의

역사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배덕만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한국개신교와 근본주의', 박창진 목사(부산교회개혁연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각 과정별 중강** (5월 30일 - 6월 20일)
서울과 대전 기독교학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및 목회학연구과정 등이 모두 종강하였습니다.
- **2017 청년대학생 신학캠프** (6월 24일)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 이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주제로 하박국에 나타난 신정론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춘 교수(조직신학)와 김근주 교수(구약학)가 강사로 섭외되며 청년/대학생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팟캐스트, 채널 느헤미야

배근원의 예고에이미

〈'침묵'을 통해 본 순교와 일본 기독교 이야기〉, 〈장미대선, 그리고 한국교회〉

복케미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김근주〉, 〈윤영훈의 명곡묵상-윤영훈〉, 〈나는 왜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데가-마크 놀〉

와일드 카드: 영화속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에이리언: 커버넌트〉, 〈패티리어트 데이〉

금요일, 책에 빠지다

〈편의점 인간-무라타사야카〉, 〈종교의 두얼굴-박종주〉,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공선옥〉, 〈인간의 변영-미로슬라브 볼프〉

P2 N.칼럼 오직 예수

강경민 목사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이사장)

P4 느헤미야 스토리 01 느헤미야 3학기를 마치며

고광덕 (목회학 연구과정 2년)

P6 느헤미야 스토리 02 느헤미야 졸업하면서 남는 것

한상은 (목회학연구과정 1회 졸업생)



오직 예수

강경민 목사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이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리를 알지니(나를 알지니) 진리가(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했다.(요8:36, 32)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케 함은 모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고 신비하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0~21)고 고백했다.

사실 바울의 고백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보편적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라”(마10:28)

옳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갖 탐욕, 그리고 궁극적 두려움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요 시작이다. 그런가 하면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적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 인간의 딜레마,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있다.

나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이미 탐욕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했다는 고백은 나의 거짓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실체적 진실이 과연 그 탐욕과 공포로부터 자유했는가? 어림없는 이야기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양면성의 괴리 사이에서 오늘도 내일도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요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내가 진토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잦아졌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소중한고 또 한 말씀이

라도 떨어져 나가면 전체가 부서지는 말씀이다. 그래도 요즘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날마다”이다. 날마다! 그렇다. 제자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미래의 승리가 오늘에 달려있다.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오늘’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이 생명이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네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요8:52) 차가운 냉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차라리 정직한 반응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성인군자의 반열에 세운 현대인들보다 훨씬 정직하다. 아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그의 사교체제와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의 영향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들이 예수를 극렬히

반대했던 유대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 못난 그리스도인 곧 나에게 있다. 유대인들이 회심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그러나 나의 회심은 멀리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느헤미야 가족들아! 그러니 못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그들을 멸시치 말자.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너무 절망치 말자.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코 다칠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9~10) 



느헤미야 3학기를 끝내며

고 광 덕

목회학연구과정 2년

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야 목회학연구과정 연구생 고광덕입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끝나고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학기를 마쳤습니다. 언제 3년이 지나 졸업할까 싶었는데 이제야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서 졸업한다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새삼스럽게 졸업한 1기 선배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바람은 무사히 졸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배움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졸업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 열심히 선생님들께 달라붙어서 정직하고 치열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꿈꾸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느헤미야 운동에 투신하신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누가되지 않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부디 남은 3학기 동안도 먼저 행하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잘 배우고 본받아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학부 시절 은사님께 추천을 받아 느헤미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비인가 학교라는 말에 ‘정말 지원해도 괜찮은

학교일까’ 싶은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느헤미야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구약, 그 정치적인 말씀”에서 김근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지체 없이 정체모를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교수님들께서 김근주 교수님의 상황과 형편을 공감하시는 방식에 강하게 추동되어, “아, 이런 선생님들이시라면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느헤미야에 오기를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 오는 전철 안에서 과제 때문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 옆 자리에 앉으신 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읽던 책을 보시더니 신학교 다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위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국내 유명한 신대원에서 M.div를 하고 있다면서,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 대견하다고 나름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윽고 그분은 제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를 다닌다고 주저 없이 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학교가 비인가라는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입니

다. 어쩌면 그분은 ‘내가 이단에게 잘못 걸려들었구나’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그런 눈치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은사님께 느헤미야를 추천받았을 때처럼 학교이름이 워낙 낮설고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았기에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왜인지 이상하리만큼 저는 가슴 한켠이 뻘뻘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이상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지 않으실런지요.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해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요즘 국내에서 유명한 한 철학자는 자신의 강연에서 그 동안 자신이 만난 선생님들은 다 거짓말쟁이였고, 시쳇말로 전부 쓰레기였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 때는 학부 시절에 감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시다만, 적어도 느헤미야에서는 달랐습니다. 저의 “아, 이런 선생님들이시라면 정말 배워보고 싶다”는 이 열망은, 지금도 여전히 “아, 정말 느헤미야에 오기를 잘했다. 천만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자랑이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느헤미야 예찬 일색이 되어버려 참 부끄러우나 이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인지라 부족하나마 두서없이 짧게 끄적여 보았습니다.

이제 곧 한 학기가 또 마무리됩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아마도 부족한 저를 지탱해주었던 소중한 동기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또 앞서 이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간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며 함께 걸어갈 동문들 때문이라도 지금 이 시간을 무던히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목적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르친 대로 몸소 삶으로 살아내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여전히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는 어리숙한 저는 마치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결눈질 할 겨를 없이 치열하게 무던히 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편안한 발코니에서가 아닌 위험천만한 길 위에서 무수한 질문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들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숙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



느헤미를 졸업하면서 남는 것

한 상 은

목회학연구과정 1회 졸업생, 교회개혁실천연대 간사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도대체 나는 왜 느헤미(느헤미야의 졸업말)에 입학했었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뚜렷한 목적은 없었다. 2014년 1월 목회학 연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 그리고 3월 입학했다. 아니, 히브리어 수업 때문에 2월부터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2월 입학인가? 아무튼 난 그때 뭔가 홀린 듯 대책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이 이곳에 입학했었다. 입학 전 난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회사 말단 직원이었다. 회사도 문제가 없었고 나름대로 일도 만족했었다. 상사 눈치도 보고 직장동료들과도 별문제 없이 지냈다. 가끔 사회적 기업이나 인디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특별히 다른 길을 택하거나 모험을 할 이유는 없었다. 단지,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인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뿐이다. 뭔가에 홀린 듯 느헤미에 입학하기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나는 뭔가 배워야 할 것만 같았다.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등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미쳤었다. 목회학 연구과정이라니? 뭐 듣도 보도 못한 공부를 하는데, 3년을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한단다. 공부한다고 해서 학위를 주거나 뭔가 보장된 것도 없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전문적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지라,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긴 어려웠다. 3년 공백은 또 뭐라 설명할 텐가. 그렇게 목표도 이유도 없었지만 뭔가 웬지 끌렸다.

그래서인지 학업도 졸업도 힘들었다. 우선, 공부를 못해서 겨우 졸업했다. 좋지 않은 머리로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란 질문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냥 한 학기 한 학기 버티며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특히 학기가 마무리되고 방학 때면 밀린 과제도 하기 바쁜 상황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었다. 2년은 죽히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던 돈이 1년 만에 다 떨어졌을 때, 돈 안 벌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무진장 애썼던 것 같다.

공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돈은 없고, 공부는 잘 못 따라가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긋지긋하다면, 정말 학교 다닐 맛이 안나게 된다. 좁은 학교에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니, 처음에는 다들 좋아 보이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진상도 이런 진상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
하기 힘들고 심지어 말도 섞기 싫게 된다.

그럼에도 느흠을 졸업하면서 가장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 보기 싫던 사람들도 사실 나
름 진지하고 솔직한 신앙인들이다. 때론 싸우
기도 많이 싸우고 감정이 많이 상할 때도 있었
지만, 그 인간들과 끝까지 함께 공부했다. 서
로 너무 다르지만 함께 지내면서 맞추어 가
기도 하고 서로 배려도하고 양보도 하게 되었다.
한창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밍게만 보이더니, 졸
업할 때 즈음 되니까 아쉽고 또 아쉽다. 정이
든 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학업을 잘 따
라가지 못할 때 함께 토론도 하고 서로 알려주
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갔다. 싸운 적도 많
았지만 때로는 울고 웃으며, 때로는 위로와 격
려를 아끼지 않으며 함께 지냈다. 사실, 이 사
람들만큼이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들도 없다. 진정한 동역자를 얻은 것이다.

또 하나 남는 것은 교수님들과의 깊은 교제다.
밤새 교수님들과 토론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교제하고, 끈끈한 스승과 제자
로서 함께 하며, 동역자로서 대우받았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들의 성실하고 치밀한 강의에
감탄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교수님들의 인간
적 면모와 친밀감을 느꼈다.

존경하는 느흠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3년간 지
내다 보니 내게도 목표가 생기더라. 입학할 땐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이 왔는데, 졸업하니 뭘
가가 좀 하고 싶어졌다. 왜 입학했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는데, 졸업이 가까워지니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꿈이란 게 생겼다. 먼저,

3년간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삶에 자양분으로 활용할 것. 또 배운 대로 살아
갈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원래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리스도인은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
가 필요하다. 그냥 교회 말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일부분이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느흠을 졸업하면서 마
지막으로 나에게 남는 것이다. ■■■



● 여름신학특강

기독교 세계관의 재구성

세계형성적 기독교와 공적제자도



광장의 해석학

기독교세계관과 공적 성경읽기

6월 19일 (월)

서울 19:30 전성민 교수



변혁의 해석학

세계형성적 기독교로서의 신칼빈주의

6월 26일 (월)

서울 19:30 김동춘 교수



정의의 해석학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

7월 4일 (월)

서울 19:30 배덕만 교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8월 8일 (월)

대전 19:30 김근주 교수

참가비 각 강좌당 1만원 (느헤미야 후원자 무료)

신청 <http://bit.ly/17nicssummer> 에서 신청

서울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3층 강의실. 070-8260-0208(사무처)

대전 함께하는교회 (대전 한밭대 앞). 010-7537-2937(김신일 목사)

2017 성서한국 전국대회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

2017. 8. 2. 수 - 8. 5. 토

건양대학교 논산창의융합캠퍼스



주강사



김형원 목사
하나.의.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성서한국 이사장

주제 강의

하나님 나라와 '총체적 복음' 이해
- 양희송 / 청어람 ARMC

나그네로 살아가기
- 김근주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500년의 다리를 잇다:
16세기 서유럽 종교개혁기의 "소명"과
21세기 신자유주의의 "소명"
- 최종원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만들어진 소명의 폭력:
"여성의 소명"에 얽힌 사회구조와 종교성
- 백소영 / 이화여대

소명,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자신의 소명"이라는 허상 깨기
- 최철호 / 생명평화연대

청년의 생기가 있는 삶을 위한 직업과 일 사이에서
- 김은혜 / 장신대

역사에서 만나는 소명
- 배덕만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등록방법

www.biblekorea.org 온라인 신청 후
선납금 5만원 입금
등록비 잔액은 7월 17일 (2차등록
마감일)까지 입금
입금 계좌
822401-04-035111(국민) 성서한국

등록비

현장 등록시 16만원
학생 1차 13만원 2차 14만원
일반 1차 14만원 2차 15만원
그룹 1차 13만원 2차 14만원
자원봉사자 8만원 / 선착순 40인 한정
어린이캠프 1인 8만원 / 추가 자녀 6만원

등록기간 1차 4. 24. (월) - 5. 29. (월)
2차 6. 1. (목) - 7. 17. (월)

※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biblekorea@gmail.com

참여교회

광교산울교회, 나들목교회, 두레교회, 사랑누리교회,
안울교회, 새암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언덕교회,
예수마울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주향교회, 하나.의.교회, 함께여는교회

참여단체

개혁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2.0목회자운동,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학인회
ESF, 기독교법률가회CLF,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뉴코리아, 빅퍼즐문화연구소,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한국부산연대, 열굴있는거레, 인권실천시민행동,
좋은교사운동, 주거권기독연대, 크리스천과학기술인포럼,
평화누리, 평화한국, 하나누리, 학생신앙운동SFC,
한국기독교학생회(VF)사회부, 한국누가회(CMF)사회부,
한빛누리, 현대기독교연구원, 희년함께

공동대표 김명혁 박종화 손봉호
이동원 이만열 이승장 홍정길

주최 **성서한국**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 2017년 4월-5월

개인 후원 (정기/일시)

강경태, 강내은,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복인, 강선희, 강성태, 강수연, 강신민, 강신영, 강인성, 강일성, 강재희, 강화춘, 고광덕, 고미혜, 고상환, 고용우, 고윤일, 고인환, 고재광, 고현정, 공경표, 공성희, 공영찬, 공창준, 광명희, 광은이, 구도원, 구본준, 구자옥, 구지혜, 권영재, 권미숙, 권미순, 권민정, 권성호, 권연경, 권영우, 권현아, 기용서, 기효용, 김강산, 김경란, 김경모, 김경희, 김광수, 김구성, 김구원, 김규동, 김규진, 김근주, 김기영, 김기창, 김기현, 김기현, 김난희, 김남재, 김남호, 김대근, 김대연, 김대원, 김대인, 김도선, 김동근, 김동식, 김동춘, 김동훈, 김태선, 김미정, 김미정,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봉태, 김사원, 김상열, 김상옥,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석훈, 김선, 김선태, 김선호,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학, 김세윤, 김세준, 김소희, 김수미, 김수희, 김순용, 김신덕, 김신환, 김아름, 김아주, 김우현, 김영구, 김영교, 김영기, 김영삼, 김영석, 김영준, 김영진, 김영혜, 김예성, 김용문, 김용준, 김우민, 김유성,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별, 김은별, 김은성, 김은애, 김은진, 김은향, 김은형, 김은혜, 김인성, 김인수, 김재선, 김재훈, 김정길, 김정은, 김정현A, 김정현B, 김정훈, 김중옥, 김중철, 김중필, 김중현, 김주석, 김준수A, 김준수B, 김준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환, 김진미, 김진선, 김진수, 김진숙, 김진영, 김진하, 김진협, 김철휘, 김태민, 김태연, 김태환, 김판재, 김하양, 김하영, 김하윤, 김한규, 김현정, 김현수, 김현실, 김현우, 김현주, 김형규, 김형원, 김혜련, 김홍근, 김소희, 김홍성, 김희범, 김희정, 나단아, 나정수, 나중성, 남기용, 남미영, 남백희, 남성현, 남오성, 남철, 노민규, 노영선, 노형림, 노혜미, 노호근, 노활석, 동방호현, 문기순, 문명당, 문봉국, 문인배, 문창호, 문형욱, 문효민, 문희은, 김경인, 민대기, 민병간, 민은경, 민은주, 민지영, 박건영, 박국이, 박근호, 박근옥, 박금자, 박기용, 박대원, 박두진, 박미경, 박미희, 박민규, 박민규, 박민서, 박민우, 박병환, 박보윤, 박신미, 박성민, 박성숙, 박성준, 박세훈, 박소영, 박순창, 박순희,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영휘, 박은정, 박재익, 박정수, 박정숙, 박종선, 박지연, 박지호, 박진일, 박진철, 박진호, 박진호, 박현배, 박현삼, 박형준A, 박형준B, 박혜원, 박혜정, 박훈용, 방성희,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운하, 배운기, 배윤호, 배진호, 배진호, 배태욱, 배효진, 백민정, 백병환, 백순철, 백승훈, 백용진, 백용환, 백종원,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석은진,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손주희, 손정근, 손태훈, 손혜미, 송경근, 송경아, 송덕무, 송병배, 송이진, 송창달, 송현미, 신동준, 신동철, 신범관, 신선영, 신승우, 신승철, 신주현, 신지호, 신현오, 신현주, 신재용, 심태영, 심혜민, 안경미, 안광희, 안병일, 안세주, 안윤희, 안재영, 양미라, 양지영, 양희수, 임정준, 임태진, 임태호, 여경애, 여신애, 오경준, 오금애, 오수경, 오수현, 오진성, 오정희, 오주희, 오지현, 오정훈, 오혜경A, 오혜경B, 옥급희, 옥명호, 우석윤, 우자영, 우재형, 우중하, 원근페리, 유기을, 유계성, 유계성, 유근순, 유동식, 유명중, 유미선,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솔, 유수경, 유수진, 유영백, 유영성, 유옥, 유인환, 유재경, 유재미, 유지은, 유지희, 유찬양, 유종현, 유호영, 유희창, 윤기원, 윤대영, 윤미지, 윤민규, 윤민진, 윤성은, 윤수일, 윤원정, 윤준택, 윤진아, 윤희정, 이강산, 이간, 이경미, 이경직, 이경하, 이관영, 이귀영, 이규복, 이근우, 이기척, 이기호, 이길성, 이동주, 이동환, 이로운, 이명숙, 이명희, 이미경, 이미순, 이미영, 이민정, 이병욱, 이병구, 이병선, 이병욱, 이보람, 이상원, 이상준, 이상진, 이상찬, 이상호, 이선재, 이성동, 이성영, 이상용, 이상찬, 이세순, 이소연, 이수미, 이수범, 이수연A, 이수연B, 이수연C, 이수정, 이순조, 이승민A, 이승민B, 이신석, 이양찬, 이연우, 이영애, 이영주, 이예림, 이원수, 이원근, 이원혁, 이윤정, 이윤희,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구, 이재수, 이재욱, 이재원, 이재은, 이정락,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종민, 이주, 이주연, 이준순, 이준우, 이종림,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숙, 이진형,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풍관, 이현일, 이한주, 이향숙, 이현아, 이현재, 이희성, 이혜원, 이호태, 이홍범, 이희석, 이희욱, 임도훈, 임명숙, 임민, 임민선, 임석환, 임아영, 임옥희, 임재전, 임정우, 임종화, 임지혜, 임철호, 임종희, 임혜진, 임희수, 장건세, 장경숙, 장명우, 장상순, 장새미, 장영근, 장영도, 장윤서, 장의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진희,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남식, 전미이, 전병준, 전세훈, 전재원, 전준희, 정가영, 정경아, 정국진, 정기혜, 정누가, 정명숙, 정미현, 정석구, 정성훈, 정여민, 정연선, 정영희, 정용민, 정원순, 정윤서,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지영, 정지은, 정지훈, 정찬형, 정채령, 정철규, 정춘식, 정택인, 정하나, 정한욱, 정해국, 정해경, 정혜은, 정홍배, 정희진, 정준재,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두용, 조신미, 조성모, 조성영, 조성호, 주수정, 조순애, 조영민, 조영욱, 조원규, 조은아, 조은주, 조주현, 조혜숙, 조혜준, 조희준, 주현우, 지성학, 진현자, 차정호, 차지훈, 채미숙, 채미혜, 채성순, 채인규, 채인혜, 채재진, 천성광, 천재성, 최경숙, 최경아, 최경진, 최동국, 최미근, 최사론, 최성호, 최소영, 최수빈, 최수진A, 최수진B, 최영민, 최영성, 최영선, 최영준, 최영준A, 최영준B, 최영희, 최용주, 최윤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주, 최은혜, 최인선,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준원, 최지영, 최진규, 최진영, 최혁순, 최현복, 최황희, 추은총, 허규아, 허태권, 하효숙, 한나영, 한명성, 한명호, 한미희, 한성민, 한승희, 한승희, 한유진,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지혜, 한혜원, 함진호, 함진화, 허성호, 허진석, 허현규, 현지윤, 형숙인, 호옥, 홍소라, 홍영미, 홍인경, 홍준호, 홍지수, 홍창용, 황기영, 황남주, 황인선, 황선과, 황성주, 황인도, 황정환, 황준영, 황원주, 황혜정

연구위원 후원

강재희, 고선숙, 권연경, 김창식, 조석민, 유지희, 김동국, 김보람, 김민철, 김창식, 김혜선, 민경일, 유지희, 이윤희, 전갑수, 전계명, 조상우, 조석민

교회 및 단체 후원

100주년 기념교회, 개포동교회, 광고산물교회, 나들목교회, 동인선교회, 백향나무교회, 사암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새삼교회, 신버림 홀케어, 어울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영동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남개그교회, 주사랑교회, 진명해피케어, 하나, 의교회, 하나꿈 한빛누리, 하나누리라 큐티, 한그루교회

특정목적 후원

프락시스(청소대여), 유지희(청소년사역)

운영성과표			
계정과목	4월-5월	계정과목	4월-5월
사업수익	53,493,941	사업비용	68,346,490
후원금	43,216,007	사업운영비	20,529,515
일반후원금	40,856,007	사업인건비	13,680,000
특정후원금	2,360,000	사업진행비	4,144,015
사업수입	10,277,934	사업홍보비	1,205,000
수강료수입	566,500	수업료지원비	1,500,500
사업수입	4,612,934	관리운영비	47,816,975
기타수입	0	인건비	25,790,201
기타수입	0	사무관리비	22,026,774
당기순자산의 증(감)		-14,852,549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유동자산	20,289,858
당좌자산	20,289,858
비유동자산	99,263,043
투자자산	8,307,349
유형자산	50,955,694
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자산총계	119,552,901
부채	
유동부채	0
부채총계	0
순자산	
기부금(연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18,107,901
순자산총계	119,552,901
부채외순자산총계	119,552,901

*느헤미야의 소식



*느헤미야 일정

- 여름신학특강 “기독교 세계관의 재구성 : 세계형성적 기독교와 공적 제자도”
 - 6월 19일 광장의 해석학 : 기독교세계관과 공적 성경읽기 (전성민)
 - 6월 26일 변혁의 해석학 : 세계형성적 기독교로서 신칼빈주의 (김동춘)
 - 7월 4일 정의의 해석학 :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 (배덕만)
 - 8월 8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김근주)-대전캠퍼스
- 신학연구과정 : 헬라이어 특강 8월 21일~25일
- 기독교학입문과정 개강예배 : 8월 28일(화)
- 기독교학심화과정 개강 : 8월 28일(화)

*교직원 동향

<복음의 공공성>출판(비아트로) : 김근주 교수(구약학)
성서한국 전국대회(8/2~5) 주강사 및 오전 특강 : 김형원, 김근주, 배덕만 교수

*기도와 동역

1. 느헤미야 2학기 각 과정 신입생 모집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도록
2. 느헤미야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지원과 공간운영을 위해 많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후원자들을 붙여주소서,
3. 김동춘, 조석민, 김형원 교수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4. 방학동안 우리 학생들이 더욱 더 건강하고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5. 우리가 동역하는 성서한국전국대회가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고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역사하십시오.

후원자들의 후원금 증액과 새로운 후원자 발굴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운영과 장학금, 전임연구위원 후원 등을 위해 후원자 발굴과 증액이 필요합니다.

후원문의 : 070-8260-0208 (강화춘 간사)

“느헤미야를 후원해주세요.”

- 정기 후원 자동이체후원 신청 www.nics.or.kr/funding
-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구위원후원 신한 100-027-945530
- 학생장학금후원 국민 012501-04-251307
- 청소년사역후원 농협 351-0908-7177-63
- 해외에서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

2017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안내

목회학연구과정(3년) 및 기독교학연구과정(2년) 모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일 ~ 8월 11일

모집인원 : 각 과정별 10명 이내

지원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전형

- 특 전 :
1. 형편에 따라 매학기 2과목이상 부분수강도 가능
 2. 신입생 장학금 50% 지급 및 재학생 추가 장학 혜택
 3. 목회학연구과정 졸업자는 졸업 후 국제장로교(IPC)와
느헤미야교회협의회 목사안수후보자 자격 취득
 4. 현재 1회 졸업생의 경우 교회사역과 기독교NGO사역,
영국 신학교 진학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기독교학 입문과정 모집

모집기간 : (서울캠퍼스) 2017년 8월 1일 ~ 10일 (대전캠퍼스) 2017년 8월 11일 ~ 21일

모집인원 : 각 요일별 30명 내외

지원자격 :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자 (목회자 지원 불가)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전형

- 특 전 :
- 전액 장학금 지급함 (단, 정기 후원약정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목회학연구과정/기독교학연구과정 청강 신청

*기독교학입문과정 온라인과정 신청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 발행인 김형원 ● 편집인 고상환 ● 편집부 고상환 광명화 ● 발행일 2017년 6월 26일
- T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M nics@nics.or.kr Podcast 채널 느헤미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www.nics.or.kr